

OECD Journal on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 2006 Report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Vol. 8 Issue 1**

Summary in Korean

OECD 개발 의제

**2006 년도 기술 협력 보고서: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노력 및 정책 현황  
8 권 1 판**

국어 개요

“DAC의 중대한 역할의 하나가 명료하고 일관된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투명은 효과성의 근원이다. 세계원조는 더 안전하고 나은 세계를 위한 투자다. 원조를 하는 국가나 받는 국가는 이 원조가 빈곤층을 위한 실체적 결과를 초래하는 데 쓰일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본인은 동 보고서에 실은 정보와 분석이 원조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논의 방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Richard Manning OECD DAC 의장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리처드 매닝이 작성한 금년 개발협력 보고서는 세계원조 총규모를 살핀 후 지원국이 2010년까지 총원조규모를 1조 300억불로 늘리고 아프리카 원조를 2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입장인지 검토한다.

보고서에서는 원조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과, 덜 받는 지역, 대외원조를 끌어들이는 (보건, 교육 등) 부문, 부채삭감 및 긴급원조가 원조 총흐름에 계속 미치는 영향 등 원조의 활용도에 관한 주요 동향을 살핀다.

또한 원조를 포함한 공공지출에 있어 개도국이 자체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원국이 추가로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아울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이행에 있어 각국이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진척사항을 포함하여 핵심 개발협력방안을 일부 보고하고 무역원조의 증대가 최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 세계원조는 증대 추이나 부채삭감이 주도적인 실정

2005년 공적개발원조 ODA 총규모는 32% 늘어나 사상 최고치 1조 68억불을 육박했다.

이는 2005년 전체 회원국의 국민총소득 합계의 0.33%를 차지하며 2004년의 0.26%보다 늘어난 수준이고 1992년 이래 최고 비율인 셈이다.

그러나 이 증대의 대부분이 (특히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채 탕감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인도적 원조를 15.8% 확대하면서 이루게 되었다.

2005년 DAC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은 폭넓게 인용되었는데 모든 지원국이 원조 공여 약속을 이행하면 원조 규모는 2004-2010년 사이 달러 불변가치로 800억불을 조금 밑돈 수준에서 1조 300억불 정도로 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08-2010년 대외원조를 급증시킬 필요가 있다고 DAC의장 매닝은 주장했다. 이는 납세자 출자 대외원조 계획이 이외의 거의 모든 공공지출 유형보다 신속히 증가해야 됨을 뜻한다.

매닝은 부채 삭감의 축소와 함께 2006-2007년 기간 중에 원조가 소폭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는 주춤하지만 원조의 대부분이 빈민국을 향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급증했으나 2005년 주로 부채 삭감을 받았던 나이지리아를 빼면 이 지역의 원조는 2005년에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약속이 앞으로 효과를 발하면 부채 삭감 외의 원조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향후 유럽과 극동구에 대한 원조는 이 지역에서 다수국의 개발이 진척되면서 2005년 이후 계속 줄어들 것 같다고 리차드 매닝은 내다본다.

현재 전체 원조의 96%가 개도국 중에서도 빈민국을 향하는데 이는 원조 배당이 빈곤층의 생활 지역에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DAC 비회원국의 원조 역시 늘어나는 중이다

OECD의 DAC 가입국이 총 ODA의 90%를 계속 차지하는 가운데 DAC 비회원국의 원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리차드 매닝은 지적한다.

워렌 버핏은 하룻밤 사이에 게이트 재단의 재원을 2배로 늘렸다.

DAC 비회원국의 원조는 전통적으로 총 ODA의 5% 정도를 차지했으나 OECD 회원국 중 DAC 비가입국인 한국과 터키, 그리고 OECD-EU 비회원국이 대외원조를 확대하면서 보다 증가할 조짐이다.

## 새로운 원조제공방식

지난 해의 흥미로운 특징은 혁신적인 개발원조방식이 논의 단계에서 현실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방안 3 가지 모두가 보건 분야를 관련했다.

- 예방접종을 위한 국제금융기관 정착
-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질병 퇴치를 위한 원조자금조달 수단으로 항공연대기금 신설 서약
- 부진한 시장 수요의 백신 개발에 대한 유인책으로 '선진시장서약' 마련

위 조치 가운데 처음 2 가지는 연간 원조 수령액을 총 20 억불 규모로 올리거나 총 원조규모를 2% 정도로 확대할 결과를 낼 것으로 본다.

## 원조 의존성

원조 의존성이 개도국의 거시경제 안정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부작용 즉 네덜란드 병을 유발할 정도로 불건전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지?

실제로 DAC 통계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인 원조의존성은 90 년대의 현격한 감소 이후로 낮은 수준에 안정된 상태다. 적잖은 원조 의존성을 드러내는 국가의 대부분이 작은 섬국가이거나 분쟁에 시달리는 국가들이다. 그렇지만 일부 넓은 국가도 원조 서약이 이행되면서 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

## 원조 효과성 제고에 관한 파리 선언 모니터링

2005 년 100 개 이상의 원조 공여국, 개도국, 다자기구가 원조 효과성 관련 파리 선언을 채택한 이후로 OECD DAC 는 파리선언의 이행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년 개발협력보고서는 2006 년 최초로 실시한 파리선언 모니터링에 관한 기초조사에 따른 초기 결과를 일부 공개한다.

동보고서는 원조 제공상의 비용 운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원조 효과성 여부는 거래비용의 감소 측면을 초월하여 국가 차원의 보다 강력하고 책임성 있는 국내기관 확보를 관련시켜야 한다. 바로 이 부문에 더 많은 연구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위의 기초조사에 드러난다.

31 개국이 이 기초조사에 참여했다.

## 국가 책임성 제고

리차드 매닝은 빈민국 정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도록 공여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을 일부 확인시키며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빈곤감소전략 수립에 있어 비정부주체와의 상담 촉진을 위한 활동 지속, 정보기술 활용으로 국가 책임성 증진
- 조세징수제도 향상에 더욱 노력

정부의 시민에 대한 책임성은 높은 원조규모가 아닌 높은 조세수입을 이룰수록 보다 강해지는 경향이라고 매닝은 지적한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도움을 주면서 수원국이 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때 많은 실적을 거둔다. 실로 현지의 정책 논의조항을

설정하는 사회계약 토대에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이다. 하지만 공여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이 바람직하다.

- 대의정부
- 독립 사법
- 독립 언론.

## 무역체제 개선을 위한 지원

개도국의 교역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없으면 시장 접근 확대도 빈곤감소에는 거의 효과를 발하지 못할 것이다.

동보고서는 최근의 평가결과에 여실히 드러난 ‘무역체제개선 지원’ 계획사업에 대한 자금규모의 빈약한 현실에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원조 효과성 관련 파리 선언이 이 계획사업에 전혀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편 개도국의 주인의식, 성과중심의 개발원조 관리의 중요성 등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일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004 년 무역체제 개선을 위한 지원 의제 테두리에서 원조규모는 교역 관련 원조 목적의 25 억불, 사회기반시설 구축 목적의 129 억불, 생산역량 강화 목적의 73 억불을 포함했다. 실로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무역체제 개선을 위한 지원 비중은 부채경감을 제하면 평균 총 ODA 의 24%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 각국 평가서 - 양자적 대의원조 차원에 반영된 각 공여국의 노력과 정책

매년 개발협력보고서는 양자적 대의원조 공여국별로 정책 및 노력 평가를 실시한다.

2006 년의 핵심 특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빈민감소문제는 대부분의 공여국에서 중추부를 이루었거나 적어도 주력 사안이었다.
- 회원국은 천년개발목표에 여전히 참여하는 상태다.
- 부패퇴치는 공여국 지배구조 의제에서 핵심 목표를 이룬다.
- 일부 공여국은 안보분야개혁의 지원계획을 활성화했다.
- 정책 일관성 차원에 이룩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 성과를 위주로 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동료 평가를 받은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5 개국에 대한 상세사항이 제공된다.

## 통계자료

회원국의 원조예산과 관련하여 개발협력보고서의 통계자료 부록에 상세한 표, 그래프, 도표와 함께 최신의 데이터를 실는다.

통계 관련 부록 및 분석은 전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홈페이지 주소 : [www.sourceoecd.org/development](http://www.sourceoecd.org/development)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